

'익산다이로움' 1조원 돌파

가입자 수 19만1천명, 전체 시민의 70% 회원가입... 민생경제 아이콘 자리매김

익산다이로움이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하며 지역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안착했다.

19일 시는 올해 다이로움 발행액이 4천688억원을 넘어지면서 총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첫 발행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발행 기간을 감안할 때 매일 평균 10억원씩 발행했다는 의미다.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넘어선 다이로움은 2020년 발행액 1,828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3,504억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으며 올해는 이미 지난해 발행액을 훌쩍 넘겼다.

누적 발행액은 시민들이 직접 착한페이 앱과 오프라인에서 충전한 일반발행분 8,330억원과 근로청년수당, 전일 장려금 등과 연계해 발행된 정책 수당 1천700억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현재 다이로움 가입자 수는 19만1,000명으로 전체 시민의 70%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행 첫 해 8만4,000명보다 2.2

배 증가한 수치이며, 가맹점도 1만 7천여개를 넘어섰다.

시는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이로움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내년에도 최대 20% 지원 혜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이로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도내 최초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됐다. 첫 발행 목표액은 100억원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며 출시 후 한 달 만에 34억원이 발행되는 등 큰 호응이 이어졌다.

이어 같은 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수단으로 다이로움이 활용되면서 20% 할인 혜택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국 최대 규모인 20% 혜택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익산민의 고유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용역에서도 잘 나타났다.

다이로움은 재정투입 대비 3.6배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그 결과 익산시 10대 공감정책 1위, 시민 정책 만족도 93.2%(2)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여 받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이로움 20%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인구정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이로움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수단 뿐만 아니라 상생의 가치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식이 향상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다이로움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익산시가 지역 향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머리를 맞댄다.

익산시 향토산업 살린다

석재·섬유·보석업체 등 대표기업과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익산시가 지역 향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석재, 섬유, 보석업체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어 3대 향토산업에 대한 홍보 및 판매 지원, 환경개선 지원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는 석재와 섬유, 보석 등 3대 향토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석재기공 업체를 대상으로 노후 기계와 근무환경 개선,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저감 시설, 석분 폐기물 운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노후 기계 교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보석 업체는 주얼리 기업 도급비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귀금속 제조기업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향토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생산한 목소리를 듣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활발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기자

군산시 2023년도 녹색자금공모사업 선정

월명호수·무장애나눔길 등 녹색자금 사업비 11억5300만원 지원

군산시는 1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 및 구세군목양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3년 녹색자금 운용계획 및 녹색자금 관리규정 에 따라 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시는 무장애나눔길 조성 분야와 실외 나눔숲 조성 분야에 제안서를 제출해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과 구세군

목양원 실외 나눔숲이 선정됐으며 녹색자금 11억5,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월명호수 주변 약 2km 구간 내 수변 데크길과 황토폰자길, 힐링숲 및 쉼터, 광장 편의시설 등 순환형 탐방로 조성으로 시민들의 힐링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 이용에 다소 제약이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기회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세군산복양원에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녹지를 확충하고 거주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아이숲과 휴게공간 기존 잔디를 활용한 잔디광장 및 산책로를 조성, 이용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효과 뿐만 아니라 조성완료 시 나눔숲 개장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화합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힐링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제1회 실버가요열전' 20일 개최

군산에서 처음으로 실버가요열전이 개최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어르신 문화행사인 '제1회 군산시 실버가요열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주관하고 KCN 금강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문화 교류 행사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예선은 음반동 노래교실,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50여명의 어르신이 참가해 본선 진출을 위한 열띤 경연을 펼친 바 있으며, 예선을 통과한 14명 중 최고의 가수왕을 뽑는 경연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래자랑 외에도 초청 가수

축하공연이 진행되며, 벽걸이 TV 등 다양한 가전제품의 경품의 행운을 가져갈 수 있는 행운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낙엽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군산시는 19일부터 연말까지 낙엽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해 도로변 가로수 낙엽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낙엽은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지만, 수거하지 않을 경우 하수구를 막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부식돼 쓰레기와 섞여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해 환경미화원과 노면정수차를 동원, 낙엽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주택이나 가정에서 낙엽쓰레기를 투명한 일반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하며,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배출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국화축제 대비 식당·카페 위생점검

익산시는 이달 개막하는 국화축제에 대비해 행사장 인근 음식점 위생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제기간 열리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간 중앙체육공원 인근 식품접객업소(식당·카페) 65개소와 행사장 내 부수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행사장 주변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이다.

점검 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미덕 위생과장은 "이번 국화축제 행사장 주변 식당·카페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준기자

익산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익산시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18일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 감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 관련 부서와 시공 중인 14개 현장 공동주택 감리단장이 참석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건설 시공을 위해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시공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감리업무 철저히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시공 중 소음, 분진, 진동 및 교통 방해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

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지역 건설기술자와 노동자 인력채용을 확대하고 상주 근로자들의 바른주소 갖기 동참도 요청했다.

참석한 감리자들은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시민 편의 증진과 입주예정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 향상과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현장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건설 시공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